

이제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생인권조례'로 130만 서울 학생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체벌, 두발규제, 강제야자, 열악한 시설...

그동안 학교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현실,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은 자기 삶의 소중함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달라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는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신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130만 서울학생들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서울교육은 가능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제정입니다.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의 신체와 인격을 무너

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 이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 여성이라는 이유,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습니다. 0교시를 없애고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에서 학생의 선택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학생인권조례가 만듭니다.

대화와 소통의 학교운영이 실현됩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됩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 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집행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끈을 놓을 때 교사는 수업 연구와 학생 상담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제 보충과 강제 야지에서 벗어날 때 교사도 부당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권을 보장받을 때 교사들의 교육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로부터 존중받는 학생은 당연히 교사를 존중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이 꽃피입니다.